

# 화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든 출산 가정 혜택 위해 확대 시행해

출산순위·태아 유형·소득 따라 차등

화순군이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인 가구다.

화순군은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단, 지원금은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서비스 종액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서비스 총액의 10%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최대 18만3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안에 화순군 보건소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 모자보건실(379-535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광모식잎송편 가공업체 대상 HACCP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22일 지역특산품인 모식잎송편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HACCP 인증 기술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모식잎송편(떡류)이 2020년 11월 30일까지 HACCP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업체의 경제적·기술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HAC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 HACCP 인증을 준비 중인 떡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인증절차와 방법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인증 심사관과 1:1 맞춤형 질의응답을 통해 HACCP 인증 시험작오, 노하우 등을 현장감 있게 듣는 시간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모식잎송편 가공업체 관계자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으로 HACCP 인증에 대한 어려움과 근심을 덜어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특산 품인 영광모식잎송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떡기공업체들이 HACCP 의무 적용에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장성군 “소중한 물 함께 절약해요”

현재 평림댐 저수율 44% 수준…물 절약 동참 독려

장성군이 마른장마에 물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알리고 수돗물 아껴 쓰기 홍보에 적극 나선다.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4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평림댐의 현재 저수율이 4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량 확보와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장성군이 수돗물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성군은 마른장마로 인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이 예년(과거 30년 평균)의 65%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고 밝혔

다. 또한 장마기간에 비가 오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며 가을부터는 댐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해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들이 ‘수돗물 아껴 쓰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수칙으로는 ▲변기수조에 물 채운 병 넣어두기 ▲설거지통 이용하기 ▲양치질할 때 물 꺾 사용하기 ▲빨랫

감은 한 번에 모아 세탁하기 ▲청소할 때 허드렛물 재사용하기 등이 있다.

아울러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누수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누수현장을 접하거나 누수사고 발생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영산강 황포돛배에 낭만과 풍류 더하다

나주시, 수영대회기간 선상 국악공연 개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영산강 벳길 유람에 낭만과 풍류를 더해줄 국악 특별 공연이 나주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7일 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 1시에 나주시립국악단의 영산강 황포돛배 선상 국악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줄 선상 국악 공연은 최대

9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대형 목조선인 ‘왕건호’에서 펼쳐진다.

왕건호는 영산포 선착장을 출발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까지 10km 구간을 약 1시간 운행한다. 벳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영모정과 기오정, 삼국시대 두 남녀의 슬픈 사랑이야기로 서린 앙암바위 등 영산강변의 수려한 경관도 함께 감상해볼 수 있다.

승선 체험료는 선박 종류와 관계없



이 성인 8천 원, 청소년 6천 원, 경로 및 초등학생 4,000원이다.

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도

팸투어(나주·화순) 또는 나주시티투어 참가자, 나주 시민 등은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장흥군, ‘청태전 홍보 판매관’ 개관

편백숲 우드랜드 향기원

장흥군은 24일 우드랜드 향기원 내에 ‘청태전 홍보 판매관’을 개관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장흥 자생산자협회, 청태전보전 연구회, 지역 차회 회원 등 50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개관한 청태전 홍보 판매관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전통 밭효자 청태전을 구입하고 직접 막걸리를 볶을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

청태전 카페에서는 블랜딩 된 청태전 음료와 청태전 함유 디저트를 다양

하게 맛 볼 수 있다.

청태전은 2007년부터 장흥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태전 제다업체의 노력으로 계승해 상품화를 시작했다.

구멍뚫린 동전과 같은 모양으로 빚은 뒤 발효시켜 들판이라고 불린다.

청태전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흥군은 그동안 청태전 구입 및 시음의 일원화 된 공간이 없어 장흥 차생산자협회와 청태전 보전연구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 담양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문자 전송 조난신고 체계 구축

담양군은 관내 등산로인 금성산성 외 6곳 77개 소에 스마트폰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 활용으로 조난신고 위치를 지점번호와 GPS(위성항법)까지 문자 전송이 가능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하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문자와 숫자 등 총 10자리로 표기되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체계

가 미흡한 곳에 설치하여 조난 시 긴급구조 요청 등에 활용된다.

해당기능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뒷면을 지점번호판의 지정된 곳에 가져다 대면 신고자가 있는 위치의 지점번호 및 GPS 문자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떠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의 경우 QR코드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함평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방재정집행 평가는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하는 종합 예산집행평가다.

평가 항목은 ▲재정 집행실적 ▲일자리 및 국고보조 사회간접자본 사업

집행실적 ▲일자리 예산규모 가중치 등 총 4개 평가 지표로, 이중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2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상반기 재정 집행률 61.77%를 기록, 행안부 목표(55.5%) 대비 6.27%를 초과 달성하며 종괄 집행실적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은 “수시로 개최해 온 재정집행 보고회와 부진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